['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55)

제2부:베일벗는 일본군 실체-42 일제군사시설과 4·3 (1)별도봉 갱도진지
일본군 갱도 4.3학살터로 이용

입력 : 2007. 02.15. 00:00:00

▲특별취재팀이 별도봉 7부 능선 지점에서 찾아낸 갱도(사진 왼쪽). 오른쪽은 갱도 내부를 조사하는 취재팀.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20곳 이상 갱도밀집 전진거점진지

방치되면서 점차 훼손..대책 시급

역사의 비극은 반복되기 마련인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제주도민등을 동원해서 파놓은 갱도 등 군사시설은 해방공간의 4 · 3에서 학살터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 60년 전의 아픈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 이달 8일 제주시 별도봉 갱도진지에서 시작됐다. 제주대학교와 제주4 · 3연구소 등은 이달 말까지 이 일대에서 4 · 3당시 희생당한 유해발굴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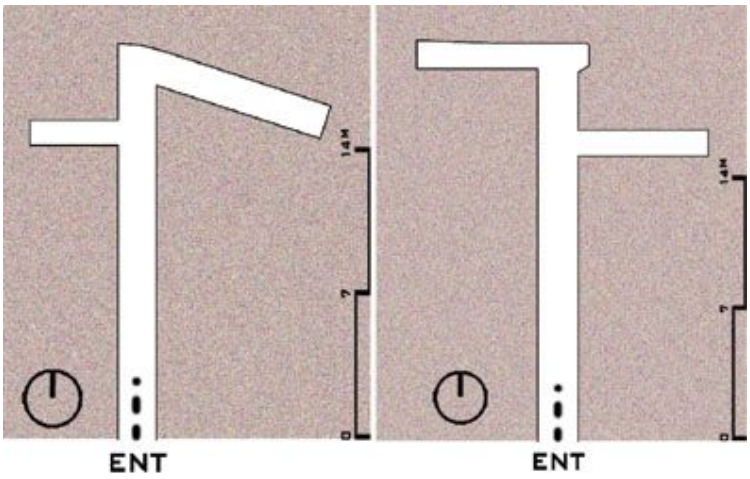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은 별도봉(別刀峰 · 표고 136m)에 많은 갱도진지를 구축한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갱도 11곳이 줄줄이 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길이 10m~25m 안팎의 이 갱도들은 모두 일자형으로 뚫려있고 송이층으로 돼 있다. 갱도 입구는 통나무 등으로 막혀있는 상태다.

하지만 본보 특별취재팀의 조사 결과 이곳에는 산책로 하단부에 7개의 갱도진지와 산책로 상단 별도봉 7부 능선 지점에 3개의 갱도 등이 새로 발견됐다. 확인하지 못한 갱도 2곳을 포함하면 모두 22곳 정도 밀집해서 구축된 것이다. 그만큼 일본군이 별도봉을 주요한 전략지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일본군이 남긴 '제58군배비개견도' 등에는 '전진거점진지'로 표시돼 있다.

한라일보

유해발굴이 이뤄지는 곳은 산책로 하단부의 갱도입구 주변이다. 이곳의 갱도는 과거 화북리 곤흘마을까지 이어지던 길을 따라 구축됐다. 곤흘마을은 별도봉 북쪽자락에 있던 마을이다. 4 · 3 당시 마을전체가 불에 타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된 비극을 간직한 마을이기도 하다. 옛길의 자취는 회색빛이 완연한 초목사이에 감춰진 돌담에서 그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유해발굴이 이뤄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하단부에서 확인되는 갱도 7곳 가운데 3곳은 입구가 무너져 막혀있다. 나머지 4곳 가운데 2곳은 한 가정집에서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갱도 역시 온갖 쓰레기로 넘쳐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별도봉 도면

별도봉 7부 능선 지점의 갱도는 하단부의 갱도와는 다른 구조를 보인다. 갱도 입구는 정남쪽 방향으로 나 있다. 한라산을 마주보고 나 있는 것이다. 이곳의 갱도는 2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동 · 서로 2개가 떨어져 있다. 갱도 길이는 각각 30m 정도로 내부에는 조그만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두 곳의 갱도는 서로 연결시키려다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하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입구가 수직굴 형태로 만들어졌다. 7부 능선 지점의 갱도는 하단부의 갱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력주둔용 등 유사시를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별도봉의 갱도는 물자저장용으로 구축됐다고 한다. 내부는 무너지지 않게 갱목으로 벽면과 천장을 받치고 널빤지 등으로 완성됐었다. 하지만 일본군은 갱도를 완성시켜 놓고 실제 이용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시민들 사이에서 최고의 산책코스로 각광받는 별도봉은 이처럼 일본군의 전쟁야욕과 4.3의 비극이 교차하는 비극의 역사현장이다.

이제라도 이 곳 일대를 역사교훈의 장으로 보존 · 활용하려는 당국의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별취재팀=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한라일보

[현장인터뷰/제주시 화북1동 김용두씨]"'함바'서 돼지같은 생활참사 말 못해"

김용두씨(1929년 생·제주시 화북1동 4047-2·사진)는 화북동 곤흘마을이 고향이다. 별도봉 자락에 자리했던 곤흘마을은 1948년 4 · 3 당시 마을 전체가 불타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면서 이제는 폐촌이 됐다. 그 자신 또한 부친과 형님을 잃은 4 · 3유족이기도 하다.

동시대 사람들이 그렇듯이 김씨 역시 1945년 일본군의 갱도 진지 구축에 '근로봉사대'로 강제동원돼 사라봉과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에서 노역에 시달렸다.

김씨에 따르면 별도봉의 굴(갱도)은 보급물자 저장용으로 구축됐다. 하지만 4 · 3 당시 이곳은 학살터로 이용됐다. 1949년 1월 무렵에 자행된 총살은 소리소문없이 이뤄졌지만 그 후 밭주인과 주민들에 의해 알려졌다. 당시 일본군이 파놓은 갱도 안과 입구에 많은 시체가 쌓여있었다고 김씨는 말했다.

"별도봉 산책로를 따라 만들어진 위 · 아래 굴을 따라 갱목 등을 실은 트럭이 한바퀴 돌아나갔습니다. 갱도 안에는 갱목과 널판지로 마무리됐었습니다."

김씨는 일제 패전 후 현장에 가서 갱도 내부의 갱목들을 직접 가져오기도 했다.

"당시 갱목이 한 아름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지주들이 권한을 가져서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갱목은 제재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땔나무로 이용되기도 했죠. 곤흘동에서도 그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지주들은 또 굴 하나에 얼마씩 받고 나무를 팔기도 했습니다." 갱목은 직경 40~50cm 정도, 옹이가 하나도 없는 미끈한 미송(美松)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사라봉에서는 징용된 한국사람들이 목괭이로 굴을 팠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사라봉에서 갱도 공사를 하면서 파낸 흙을 날랐다. 그 때 사라봉에는 몇 군데 일본군의 포가 설치된 것을 목격했다. 김씨의 말에 따르면 사라봉에는 포병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김씨는 또 부친 대신에 정뜨르비행장에서 며칠 동안 일을 하기도 했다. 비행장공사는 목괭이와 삽으로 했고 아스팔트를 못하니까 '때'(잔듸)를 깔았다. 당시 '함바'에서 생활했는데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 "함바는 지면을 반 지하식으로 파고 가운데는 그보다 깊게 해서 통로를 만들고 좌우 쪽으로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붕은 띠로 덮고 흙과 나무로 의지했는데 맨바닥에 가마니 같은 것을 깔고 잤습니다. 한마디로 돼지 같은 생활이었죠."

식사 역시 껍질을 잘 벗기지 않은 좁쌀로 밥을 짓고 국은 아무 채소도 없는 썩은 된장국을 주었다며 "음식이 너무 거칠어 화장실에 가면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서 배설을 못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일을 빨리 안하면 일본인 십장이 '조센진'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도 보통이었다.

한라일보

김씨는 그러면서 "36년 동안의 왜정시대와 이어진 '4 · 3' 등 당시는 정말 끔찍한 시대였다"고 몸서리를 쳤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